

시제부가어의 2가지 의미유형*

김 연 응**

목 차

- 1 문제제기
- 2 시제부가어의 두가지 의미유형
 - 2.1 BZS
 - 2.2 EVZ
- 3 시제와 시제부가어
 - 3.1 BZS
 - 3.1.1 현재와 과거시제
 - 3.1.2 완료시제
 - 3.2 EVZ
 - 3.2.1 현재와 과거시제
 - 3.2.2 완료시제
- 4 국어와 시제부가어
- 5 형식화를 위하여
- 6 결론

1 문제제기

부가어(Adjunkt)의 의미론적 범주는 각 이론에 따라 상이하게 기술될 수 있다. 이들 중 시제부가어(temporale Adjunkt)의 의미범주는 시제현상과 더불어 통사상에 나타나서 문장의 의미를 복잡하게 한다. 시제부가어는 Intervallsemantik¹⁾의 연구에 핵심부분이다. Vendler(1967)가 언어현상을 정태적(statisch)이고, 동적인(dynamisch) 구조로 설명했을 때, 시제부가어가 동적인 언어현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점은 동사의 '상(Aspekt)' 연구에 중요한 기반을 이룬다. 의미론

* 이 논문은 1995년 6월 25일 인문과학연구소 제5회 국제학술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내용임.

** 人文大 獨語獨學科 講師

에서 다루는 문장의 의미는 시제현상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어느 특정 시점 (zum bestimmten Zeitpunkt)' 에 '사건이 일어남' 을 의미한다. 그러나 Intervallsemantik에서 다루는 문장의 의미는 '사건이 일정한 시간간격 (Intervall 혹은 Zeitraum)에서 지속되고 있음' 을 뜻한다. 이러한 시간간격을 나타내는 시제부가어가 시제현상과 결합하면 의미가 투명하지 않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1-1) a. Ich warte *schon drei Tage* auf dich.
 b. Ich bleibe *drei Tage* in dieser Stadt.

위의 두 문장은 같은 현재시제에 시간부가어가 결합되어있다. 그러나 두 문장의 의미는 같지 않다. 문장a.는 현재시제이지만 부가어 *schon drei Tage*로 인해서 과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장b.의 현재시제는 부가어 *drei Tage*로 인해서 미래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부가어를 서로 교환하게 되면 역시 같은 결과가 초래된다:

- (1-2) a. Ich warte *drei Tage* auf dich.
 b. Ich bleibe *schon drei Tage* in dieser Stadt.

과거를 의미했던 문장(1-1)a는 (1-2)a에서 시제부가어 *drei Tage*로 인해 미래 시제의 의미를 나타낸다. 반대로 문장(1-2)b는 (1-1)b에서와는 달리 과거의 의미를 포

-
- 1) 동사의 상(Aspekt)의 연구분야를 의미한다. 상의 전통적인 정의는 'perfektiv - imperfektiv' 의 대립이다. 전자의 경우는 사건의 완전성(Vollständigkeit)이나 총체성(Ganzheit)을 의미하고, 후자는 사건의 습관성(Gewohnlichkeit)이나 반복 혹은 지속성을 의미한다. Comrie(1976:16)에 의하면 전자를 "the view of the situation as a whole, without distinction of the various separates that makes up the whole..."로 정의하고, Brinton(1988:2)은 "aspect expresses whether the speaker looks upon an action in its entirety, or with special reference to some part(chiefly) the beginning or end"라고 한다.

함하고 있다. 이 사실은 시제부가어 자체가 특성적(charakteristisch)인 의미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시제의미도 시제부가어에 의해 결정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제부가어의 의미구조 연구 없이는 시제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시제와 시제부가어의 결합을 연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I. 시제부사의 특성적 의미:

- a) schon drei Tage가 함의하는 바는 사건이 불확실한 어느 시점에서 시작하여 계속되고(progressiv)있고: → [+progressiv].
- b) drei Tage는 시간간격이 언제부터 출발하여 3일간만 해당되고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 [-progressiv].

가설 II. 시제부가어는 시제에 의해 시간좌표(Zeitachse)선상에 놓이게(lokalisiert) 됨으로써 그 의미치(Referenz)가 해석(Interpretation)²⁾ 되게 된다.

이 가설에 의하면, 문장(1-1)a.는 '나는 3일간 너를 기다리고 있고, 기다림은 더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제부가어의 특성적인 의미에 시제가 결합하면 '사건이 3일전에 시작하여 시제시점인 현재에 미치고 있고 더 지속될 수 있음'으로 해석된다. 문장(1-1)b.의 의미는 '사건이 시제시점인 현재에서 출발하여 3일간만 계속되고 더 이상은 진행되지 않음'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시간부가어의 연구는 시간간격의 의미유형과, 이 시간간격의 유형이 시

2) 시제표현의 의미치(Referenz)를 의미한다. 즉 시제표현의 의미인 시간이 시간좌표(Zeitachse) 선상위에 일정하게 위치함(Lokalisierung)을 표현하는 과정을 '해석'한다고 할 수 있다. 이 해석과정은 시제연산자들(Operatoren)에 의하여 표현된다. 시제연산자들은 Reichenbach(1947)의 모형에 따라 발화시점(Sprechzeitpunkt), 사건시점(Ereigniszeitpunkt), 지시점(Referenzzeitpunkt)으로 나누어 진다. 지시점(R)이 사건시점(E)와 발화시점(S)에 상대적으로 위치함으로써 그 위치점이 시제표현들의 의미가 결정된다. 이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김연웅(1995): 독일어 시제표현의 술어-논항구조, 독일문학 36권 3호, 1995.9, 한국독어독문학회를 참조하기 바람.

제에 의해 어떻게 해석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 결과를 국어에 비교해 봄은 국어의 시제에 관련한 제문제를 연구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있다.

2 시제부가어의 2가지 의미유형

시제부가어의 유형은 사건의 시간간격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위의 가설에 의하면 시제부가어는 1.시간간격의 출발점 혹은 종결점을 나타내어 더 이상 사건의 지속이 함의되지 않는 경우와 2.사건의 시간간격이 계속됨을 함의하는 경우로 대별된다. 이 시제부가어의 유형이 시제와 결합하므로써 시제표현의 상이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2.1 유형 BZS

사건의 시간간격이 발화시점(Sprechzeitpunkt 혹은 jetzt)까지 오는 경우를 의미하는 시간부가어로 독일어 'bis zum Sprechzeitpunkt'의 약자 'BZS'로 표현하기로 한다. 이에 해당하는 부가어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 (2.1-1) a. Maria wohnt *seit drei Jahren* in Seoul.
 b. *Wie lange* warten Sie *schon*?
 c. Kohl wartet *schon lange* darauf.
 d. *Drei Jahre* bin ich da.

이 예문들은 사건의 시간간격이 과거에서 출발하고 시제시점까지 영향을 미치고 아직도 더 지속됨을 함의한다. 따라서 이 시제부사의 특성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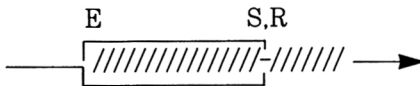
- (2.1-2) t_{0-n} t_0 t_{0+n}



이 표현에서 사건의 종결을 t_0 으로 보면, 사건의 출발은 그 이전 t_{-n} 에 분명하게 나타난 반면, t_0 에서 시간간격이 종결되지 않고 더 지속됨(/////)을 나타낸다. 물론 임의시간 t_{0+n} 에서 시간간격의 끝이 있음을 함의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제부가어의 의미는 위의 가설Ⅱ)에 해당한다. 이 시간간격은 가설Ⅲ)에 따라 시제에 의해 최종 해석된다. 시제연산자는 과거(Ve), 현재(Ge), 미래(Zu)이고 이들은 지시체적 시점연산자들³⁾에 의해 해석된다. 위의 예문에서 보면, (2.1-2)의 시제부사의 특성과 문장에 나타난 시제에 의해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2.1-3) a. Maria wohnt *seit drei Jahren* in Seoul.

b. 해석:



이 문장의 시제가 현재이므로 시제부가어 *schon lange*의 종결시점이 현재시제의 의미인 지시점에 일한다. 따라서 t_0 는 시제개념인 지시점R로 해석되고, 출발시점 t_{-n} 은 과거의 어느 시점을 의미하여 시제개념인 사건시점E에 해당한다. 또한 시제의 지시점R은 현재시제이므로 현재를 나타내는 발화시점과 일치된다. 이리하여 (3.1-3)b의 의미는 '사건이 과거에서 출발하여 발화시점까지 미치고 있고, 아직도 계속됨'을 함의 한다.

이러한 시제부가어들에는 다음과 같은 복합부류들이 있다:

1 schon과의 복합형:

3) 시간간격이 들어있지 않는 시제는 발화시점(S)와 사건시점(E)는 같다. 예를 들어 과거시제는 $-R-S, E-$ 혹은 $R(S, E)$ 로 표현된다. 지시점R이 발화시점과 사건시점 이전(\langle)에 있어 과거를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간격이 들어있는 Intervallsemantik에서는 사건시점E와 발화시점S는 동일시 될 수 없다. 사건시점E는 사건의 출발점을 의미하고 지시점R가 사건의 종결점을 나타낸다. 이들은 발화시점S에 의해 상대적으로 표현되므로써 시제표현이 궁극적으로 해석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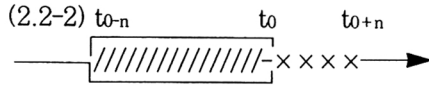
- schon lange
 schon drei Jahre
 schon tagelang/wochenlang/jahrelang
- 2 seit와의 복합형:
 seit langem
 seit drei Jahren
 seitdem
 seither
- 3 schon과 seit의 복합형:
 schon seit langem
 schon seit drei Jahren
- 4 noch와의 결합형:
 noch
 noch immer
 immer noch

2.2 유형 EVZ

사건의 시간간격이 과거에서 혹은 미래에 끝남을 나타낸다. 이 시간부가어는 독일어 'Ende in der Vergangenheit oder in der Zukunft'의 약자 'EVZ'로 표현하기로 한다. 이에 해당하는 부가어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 (2.2-1) a. Maria bleibt *drei Tage* in Seoul.
 b. Kohl wartet *lange* darauf.
 c. Er wartet *eine Stunde* auf Maria.

이 예문들은 사건의 시간간격이 출발점과 끝지점이 나타난다. 따라서 사건의 지속을 함의하지 못한다. 이 시제부사의 특성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이 표현에서 사건의 종결을 t_0 으로 보면, 사건의 출발은 그 이전 t_{0-n} 에 분명하게 나타난 반면, t_0 에서 시간간격이 종결된다($\times \times \times$). 따라서 이 시제부가어의 의미는 위의 가설1에 해당한다. 이 시간간격은 가설3에 따라 시제에 의해 최종 해석된다. 시제연산자는 과거(Ve), 현재(Ge), 미래(Zu)이고 이들은 지시체적 시점연산자들에 의해 해석된다. 위의 예문에서 보면, (2.2-2)의 시제부사의 특성과 문장에 나타난 시제에 의해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2.2-3) a. Er wartet eine Stunde auf Maria.

b. 해석:



이 문장의 시제가 현재이므로 시제부가어 eine Stunde는 시간간격의 출발이 현재이고, 종결시점은 한 시간후이다. 종결시점이 현재를 중심으로 한 시간이후이므로 미래에 종결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t_0 는 시제개념인 지시점R로 해석되고, 출발시점 t_{0-n} 은 현재시점이고 이것은 사건시점의 출발점이니 사건시점E에 해당한다. 이리하여 (3.2-3)b의 의미는 '사건이 현재에서 출발하여 한시간 이후에 종결됨'을 뜻한다. 그러므로 주어진 '그는 한시간 동안만 마리아를 기다릴 것임'을 시사한다. 그 이후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이러한 시제부가어들에는 다음과 같은 복합부류들이 있다:

1 lange과의 복합형:

- lange
- stundelang
- tagelang
- wochenlang

jahrelang

noch lange

2 4격시간명사구:

drei Jahre

eine Stunde

den ganzen Tag

3 기타:

nie

oft

immer

einmal, je

3 시제와 시제부사 유형

3.1 유형 BZS

3.1.1 현재와 과거시제

시제부가어의 시간간격은 시제에 의하여 비로소 해석되어진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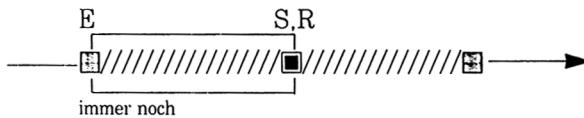
(3.1.1-1)a. Es wunderte mich zuerst, da Gerti auch mitging, statt be mir zu bleiben. Aber sie war so traurig und angstvoll verzweifelt. In so einem Zustand ist einer Frau auch ein Mann, den sie nicht mag, immer noch lieber als eine Frau, die sie mag. Mann ist eben Mann⁴⁾.

b. Der sympatische Junge, der die nackte Dejaneyta bestaunte, als w re sie ein Wunder - und sie war ja wirklich eine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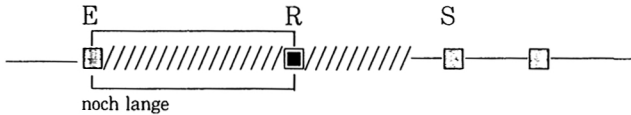
4) Keun, Irmgard: *Nach Mitternacht*, Hannover 1961, Fischer-Bücherlei, Bd.693, s.45.

und der immer noch kaum die Stiefel auszuziehen wagte, tat ihm leid⁵⁾.

(3.1.1-1)a.에서 현재시제와 시제부사유형 BZS와 결합되어 있다. 발화시점 (■)이 현재이므로 사건의 시작은 이미 과거이다. 그리고 사건이 현재이후로 계속 지속됨 (///////)을 함의 한다. 이러한 시제의 의미를 기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표현법을 사용한다:



(3.1.1-1)b.에서 과거시제⁶⁾와 시제부사유형 BZS가 결합되어 있다. 발화시점 (■)이 과거이므로 사건의 시작은 이미 대과거이다. 그리고 사건이 과거 발화시점이후로 계속지속됨(///////)을 함의 하나, 현재시제 이전에 끝난다:



5) Dürrenmatt, Friedrich: *Gesammelte Hörspiele* (1954-1961), Die Arche, Zürich, n.d., Sonderausgabe Europäischer Buchklub, Bd. XV. S.182

6) Weinrich(TEMPUS, *Besprochene und ärz hlte Welt, Sprache und Literatur* 16,Kohlhammer Verlang,Stuttgart 1964)에 의하면 과거시제는 erzählte Welt에 속하는 시제유형이다. 이 경우 관찰자시점(Beobachtungszeitpunkt: 약자로 B)을 설정하면 된다. Besprochene Welt에서 발화시점S는 관찰자시점과 일치한다. 그러나 Erzählte Welt에서는 관찰자시점B가 발화시점과 분리되어 발화시점을 과거로 이동시킨다. 따라서 '역사적현재(historisches Präsens)' 시제 등을 처리할 수있다. 다음 예문에서 시제부사 'nun'은 Besprochene Welt에서는 오직 현재시제와 결합한다. 그러나 erzählte Welt에서는 과거시제와 결합할 수 있다. 왜냐하면 관찰자 시점이 과거로 이동(versetzen sich)되기 때문이다: Er war nun dreißig Jahre alt.

3.1.2 완료시제

다음은 현재완료시제와 시제부사 유형 BZS와 결합이 나타난 예문이다:

(3.1.2-1)a. Und ich sah dazwischen immer wieder meine Frau an.
Das alles hing ganz von selbst zusammen, aber ich wei
nicht wieß Seit Jahren habe ich dich geliebt -dachte ich-
wie nicht auf dieser Welt, und nun liegst du da wie eine
ausgebrannte H lse der Liebe. Nun bist du mir ganz
fremd geworden, nun bin ich herausgekommen am
anderen Erde der Liebe.⁷⁾

b. Der schreckliche Augenblick war gekommen ... Die vier
Jahre waren um. Die schwarzen eisernen Torfl gel, die er
seit einem Jahre mit wachsendem Widerwillen
betrachtet hatte ... waren hinter ihm geschlossen.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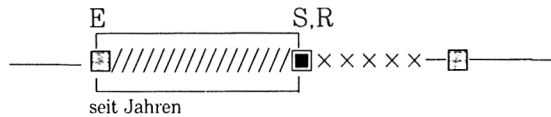
(3.1.2-1)a.에는 현재완료시제와 시제부사유형 BZS가 결합되어 있다. 현재
완료시제는 근본적으로 과거시제이다. 그러나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에 영
향을 미친다. 다음예문에서 과거시제와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3.1.2-2) a. Der Junge machte seine Aufgabe. Er macht heute Pause.
b. Der Junge hat seine Aufgabe gemacht. Er macht heute
Pause.

7) Musil, Robert: "Die Amsel", *Deuthscland erzählt*, hrsg. von Benno
von Wiese, Frankfurt-Haumburg 1962, Fischer Bücherlei, Bd.500,
s.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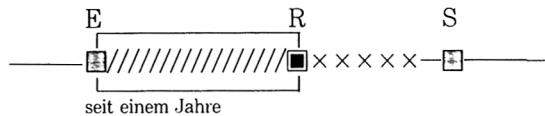
8) Döblin, Alfred: *Berlin Alexanderplatz*, Freiburg 1929, dtv-
Taschenbuch Nr.295, s.8.

예문a의 첫 문장은 과거시제이고 다음은 현재시제이다. 이 두사건은 내용적으로 관련성이 없다. 그러나 예문b의 두 문장은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현재완료시제가 현재사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남자아이가 과제를 한' 사실로 인해 '그는 오늘 쉰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현재완료가 과거사실이기 때문에 미래의 지속을 함의하지 못 한다. 따라서 사건의 지속을 함의하는 시제부가어 유형 BZS과의 결합에서는 사건의 지속성이 함의될 수 없다. 그러므로 발화시점(■)이 현재이므로 사건의 시작은 이미 과거이다. 그리고 사건이 현재 이후로 계속 지속되지 않음을 함의 한다:



이 도식의 의미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과거에서 시작되어(seit Jahren) 현재에 이르나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음(현재완료)”을 의미한다.

(3.1.2-1)b.에는 과거완료시제와 시제부사유형 BZS가 결합되어 있다. 발화시점(■)이 과거이므로 사건의 시작은 이미 대과거이다. 그리고 사건이 과거발화시점까지 계속되나 더이상 이후로 지속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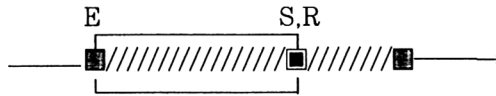
이 도식의 의미는 “그가 끊어 오르는 혐오감으로 관찰하기는 대과거에 즉 1년 전에 시작하여(seit einem Jahre) 현재 이전의 과거에 종결됨(과거완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완료시제에서 동사 성질에 의해 사건이 미래에 지속됨을 함의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예문을 살펴보자:

- (3.1.2-3)a. Maria ist vor drei Tagen spurlos verschwunden.
- b. Das Theater hat schon lange angefangen.

완료적 동사(perfektives Verb)⁹⁾와 현재완료 그리고 시제부사유형 BZS^o하 결합하면 사건은 발화시점에 까지 아직도 진행됨을 함의한다. 이 경우 완료형은 과거사건에 초점이 있거나, 그 사건에 의한 나머지 진행에 초점이 있다. 이 예문의 시제해석은 다음과 같다:

(3.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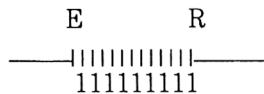
그러나 사건의 반복을 나타내는 동사¹⁰⁾가 시제부사유 유형 BZS의 의미를 지는 시간점속사 seitem과 결합하면 현재완료시제를 쓸수 없고 현재를 사용한다. 다음예문을 살펴보자:

- (3.1.2-5)a. seitdem ich sie kenne, ...
- b. ?seitdem ich sie gekannt habe, ...

9) 이 동사가 나타내 주는 사건은 시간간격속에 동질성(Homogenität)이 들어있지 않다. 일정한 시간간격을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사건이 부분적인 시간에서 참(wahr)이지 못하고 전체 시간간격속에서 참이다(아래 도식의 0표시는 문장이 참이지 못함을 의미한다).



10) 각주9)의 perfektiv한 동사와는 달리 durativ한 사건을 표현하는 동사는 시간간격을 부분으로 나누어도 어느 시점에서든 사건은 참이다(아래 도식의 1표시는 문장이 참임을 의미한다)



- (3.1.2-6)a. ?seitdem ich sie kennenlerne, ...
 b. seitdem ich sie kennengelernt habe, ...

동사 *kennen*은 사건의 반복을 나타내는 *duratives Verb*이다. 이 경우 *seitdem*과의 결합시에 현재완료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3.1.2-5)b는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된다. 반대로 *perfektives Verb*인 *kennlernen*은 *seitdem*과 결합하면 현재시제를 쓸수 없고 현재완료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3.1.2-6)a는 틀린 문장이 된다. 따라서 *duratives Verb*의 현재 혹은 과거시제와 시제부가어 유형 BZS과 결합하면 사건은 발화시점(현재 혹은 과거)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에 부터 시제시점에 까지 진행되고 더 계속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3.2 유형 EVZ

3.2.1 현재와 과거시제

시제부가어 유형 EVZ과 시제와의 결합현상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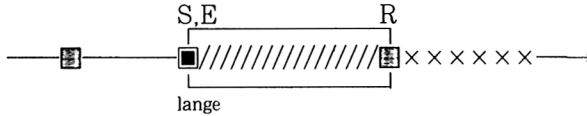
- (3.2.1-1)a. Eine Frage qu lt ihn lange. Er berwindet sich und spricht sie aus, starr in die Ferne blickend : "Dietrich, glaubst du, da Madchen treu sind?¹¹⁾"
 b. Willi stand auf und hielt sie hin. Auch der Mann erhob sich. Einen Augenblick lang sah er sich um ; dann machte er einen hastigen Schritt auf Willi zu¹²⁾.

(3.2.1-1)a.에서 현재시제와 시제부가어 유형 EVZ가 결합되어 있다. 발화시점(■)이 현재이므로 사건의 시작은 현재에서 미래 언제가 종결이 된다. 그러나

11) Tie, Frank: *Abschied von Paradies* (1927), Paul-Zsolnay-Jubilumsausgabe, 1949, s.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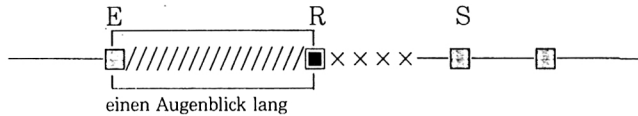
12) Schnurre, Wolfdietrich: "Leusenheben", *Lesen und Horen*, Zurich 1958, Ullstein-Buch Nr. 382, 1962, s.65.

사건의 지속성은 들어 있지 않다(××××):



이 도식의 의미는 “어떤 질문이 그를 한동안 고통스럽게 하겠지만(현재시제) 그 고통이 계속되지는 않음(lange)”을 의미한다.

(3.2.1-1)b.에서 과거시제와 시제부가어 유형 EVZ가 결합되어 있다. 발화 시점(■)이 과거이므로 사건의 시작은 과거이고 미래 언제가 종결이 된다. 그러나 현재시제까지 이르지 못한다.사건의 지속성은 들어 있지 않다(××××):



이 도식의 의미는 “그가 주위를 살피는 일이 /과거에 시작하여(과거시제) 미래 즉 현재이전에 종결됨(einen Augenblick lang)”을 의미한다.

3.2.2 완료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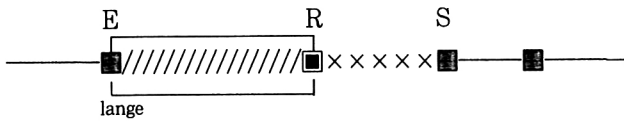
(3.2.2-1)a. “Brauchst keine Angst zu haben”, sagte er. “Jetzt ist es eben so gekommen, wie ich’s lang erwartet hab. Hast immer auf so was gewartet, Anna?¹³⁾”.

b. “Kommst du endlich, Hans?” sagte Tonio Kr ger,

13) Rinser, Luise: *Jan Lobel aus Warschau*, Frankfurt a.M. 1956, s.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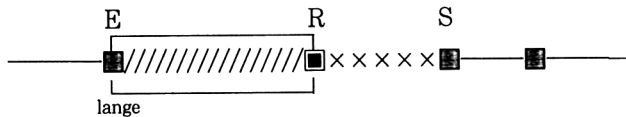
der lange auf dem Fahrdamm gewartet hatte ...¹⁴⁾

(3.2.2-1)a.에서 현재완료시제와 시제부가어 유형 EVZ가 결합되어 있다. 발화시점(■)이 과거이므로 사건의 시작은 대과거에서 미래 언젠가 즉 현재이전의 과거시점에 종결된다. 그러나 사건의 지속성은 들어 있지 않다(××××):



이 도식의 의미는 “내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대과거에 시작하여(lange) 현재이전의 과거에서 종결됨(현재완료)”을 의미한다.

(3.2.2-1)b.에서 과거완료시제와 시제부가어 유형 EVZ가 결합되어 있다. 발화시점(■)이 과거이므로 사건의 시작은 과거이고 미래 언젠가 즉 현재 이전의 과거에서 종결된다. 그러나 현재시제까지 이르지 못한다. 사건의 지속성은 들어 있지 않다(××××):



이 도식의 의미는 “그가 차도를 기다리기는 과거에 시작하여(과거완료) 현재이전의 과거에 종결됨(lange)”을 의미한다.

4. 국어의 시제부가어: 벌써/이미-, 와 -간(만)

국어에 있어 시제형태소는 -았, -다, -겠이다. 여기에 독일어의 두가지 시제부가어 유형을 적용해 보자. 유형BZS에 해당하는 국어의 시제부가어는 주로

14) Mann, Tomas: *Tonio Kröger*, 1903, Fischer-Bücherlei, Bd.800/1, s.3.

‘벌써’ 혹은 ‘이미’ 라는 부사와 결합된 형태들이다. 유형EVZ에 해당하는 시제 부가어는 ‘-간(만)’ 이란 형태소 결합이다. 이들에 대한 예문을 살펴보자.

- (4-1)a. 그 노부인은 벌써 30년 동안이나 남편을 기다리다.
 b. 그 노부인은 벌써 30년 동안이나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c. ?그 노부인은 벌써 30년 동안이나 남편을 기다리겠다.

국어에서 시제부가어 유형BZS은 과거와 현재시제와만 결합이 가능하다. 그리고 독일어와 마찬가지로 사건은 이전에 시작하여 발화시점에 까지 이르고 또한 지속성이 함의 된다. 그러나 미래시제와는 결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예문c는 문법적으로 틀린문장이다.

시제부가어 유형EVZ은 국어에서 미래시제와만 결합이 가능하다.

- (4-2)a. ?그 노부인은 30년간만 남편을 기다리다.
 b. ?그 노부인은 30년간만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경우 형태소 ‘-만’ 은 일정한 시간간격을 결정한다. 반복을 나타내는 (durativ) 동사 ‘기다리다’ 와 결합이 어렵다. 그러나 미래시제와는 결합이 가능하다.

- (4-3) 나는 3일간만 너를 기다리겠다.

그러나 이 경우 사건의 지속성은 함의 되지 않는다. 사건 ‘나는 너를 기다리기’ 는 앞으로 3일간만 계속되고 그 이상은 지속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른 부가어와의 결합이 없이, 형태소 ‘-동안 혹은 -간’ 은 분명한 시간부가어의 유형을 보여주지 못한다.

- (4-4)a. 그 노부인은 30년 동안 남편을 기다렸다.
 b. 나는 3일 동안 너를 기다리겠다.

이 경우 사건의 지속성의 유무가 확인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문맥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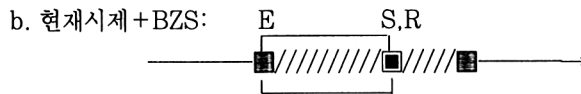
(4-5) 그러나 그 노부인은 30년 동안 남편을 기다렸다.

기다리던 남편이 나타났을 때, 이 문장을 발화한다면 사건의 지속성 보다는 기다림의 긴 세월에 초점이 있을 수 있다.

5. 형식화 문제

이런 단편(Fragment)연구는 전체문법(Gesamtsgrammatik)에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Montague-틀¹⁵⁾에서 기술해 보자. 시간의 내포(Intension)는 집합에서 함수(Funktion)이고, 시간의미는 그 집합의 원소(Element)들이다. 이 개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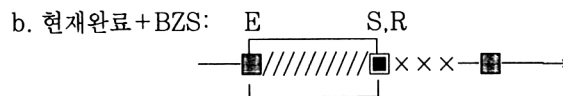
(5-1)a. 시간함수: $'E(W,R \subseteq Z \times Z) \rightarrow \{w,z \in E \subseteq Z \times Z | s,r,e \in 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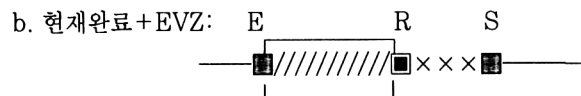
(5-2)a. 시간함수: $'E(W,R \subseteq Z \times Z) \rightarrow \{w,z \in E \subseteq Z \times Z | s,r,e \in z\}'$



(5-3)a. 시간함수: $'E(W,R \subseteq Z \times Z) \rightarrow \{w,z \in E \subseteq Z \times Z | s,r,e \in z\}'$



(5-4)a. 시간함수: $'E(W,R \subseteq Z \times Z) \rightarrow \{w,z \in E \subseteq Z \times Z | s,r,e \in z\}'$



15) Montague,R(1974): "PTQ", In: Montague(1974),pp.247-270.

6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독일어의 시제부가어가 나타내는 시간간격과 시제현상을 분석해 보았다. 이에 따라 시제는 시간부가어에 의해 그 의미가 결정되었다. 이들의 해석은 시간연산자의 도움으로 시간좌표에 표현되므로써 수행된다. 이 사실들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1) 반복동사의 현재시제와 시제부가어BZS는 사건이 과거에서 출발하여 현재에도 아직 진행되고 지속성이 함의됨을 나타낸다.
- 2) 반복동사의 현재시제와 시제부가어EVZ는 사건이 미래에서 종결되고 더 이상 사건의 지속성이 함의 되지 않는다.
- 3) 지속동사의 현재완료와 과거완료 시제의 결합은 시제부가어 유형BZS와 결합해도 사건의 지속성이 함의되지 않고 종결된다.
- 4) 국어 시제에서 시간부가어 유형BZS은 과거와 현재시제와만이 결합하고, 유형EVZ은 미래시제와만이 결합한다.

참고문헌

- 고영근(1986), 국어의 시제와 동작상, 인문논총5, 서울대 인문과학 연구소.
 김연웅(1995), 독일어 시제표현의 '술어-논항' 구조, 독일문학36권 3호.
 김차균(1990), 우리말의 시제와 상의 연구, 대학사.
 남기심(1978), 국어문법의 시제문제에 관한 연구, 탑출판사.
 이기용(1980), 몬테규문법에 입각한 한국어 시제의 분석, 언어5-1.

1. 독문1차 원문:

- Döblin, Alfred: *Berlin Alexanderplatz*, Freiburg 1929, dtv-Taschenbuch Nr.295, s.8.
 Dürrenmatt, Friedrich: *Gesammelte Hörspiele* (1954-1961), DieArche, Zürich, n.d., Sonderausgabe Europäischer Buchklub Bd.XV. S.182
 Keun, Irmgard: *Nach Mitternacht*, Hannover 1961, Fischer-Bücherlei, Bd.693, s.45.
 Mann, Tomas: *Tonio Kröger*, 1903, Fischer-Bücherlei, Bd.800/1, s.3.
 Musil, Robert: "Die Amsel", *Deuthscland erzählt*, hrsg. von Benno von Wiese, Frankfurt-Haumburg 1962, Fischer Bücherlei, Bd.500, s.73.
 Rinser, Luise: *Jan Lobel aus Warschau*, Frankfurt a.M. 1956, s.67.
 Schnurre, Wolfdietrich: "Leusenheben", *Lesen und Hören*, Zürich 1958, Ullstein-Buch Nr. 382, 1962, s.65.
 Tieß, Frank: *Abschied von Paradies*(1927), Paul-Zsolnay-Jubilumsausgabe, 1949, s.89.

2. 독문2차 원문:

- Comrie, B. (1976), *Aspect* Cambridge Uni. Press.
 ——— (1985), *Tense* Cambridge Uni. Press.

- Löbner,S.(1988), "Ansätze zu einer integralen semantischen Theorie von Tempus, Aspekt und Aktionsart". In: V. Ehrich & H.Vater(Hrg.), *Temporalsemantik. Beiträge zur Linguistik der Zeitreferenz*. Marx Niemeyer Verlag. S. 163-191.
- Montague,R.(1974a), "The Proper Treatment of Quantification in Ordinary English(PTQ)". In: *Montague(1974)*. pp. 247-270.
- Reichenbach,H.(1947), *Elements of Symbolic Logic*. Macemillan. New York.
- Vendler, Zemo(1967), *Verbs and Times Linguistics in Philosophy* cornell Uni.Press.
- Weinrich,(1964): *TEMPUS, Besprochene und erzählte Welt, Sprache und Literatur* 16,Kohlhammer Verlag,Stuttgart.
- Wunderlich,D.(1970), *Tempus und Zeitreferenz im Deutschen*. Marx Hueber Verlag.München.

Abstraction

Two Semantic types of temporal Adjuncts.

Kim, Yeon-Woong

This investigation would scrutinize the following problem: 1) Which stretch-of-time adjuncts occur with the various German tenses? 2) What influence do these time adjuncts have on the meaning of German tenses? 3) What influence, if any, do German verbal tenses have on the 'location' of time stretches on the time axis? Past and present tense verb forms of the durative verbs with BZS-adjuncts refer the situations which started in the past and continue up to and into the moment of speaking. Perfect and pluperfect tense forms of the durative verbs in connection with BZS express what has been (or had been) up to the present or past 'Now'.